2020년 6월 19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방향성 없는 종목 장세속 혼조 마감

## 트럼프 "코로나는 중국이 다른 나라 경제 피해 주기 위해 퍼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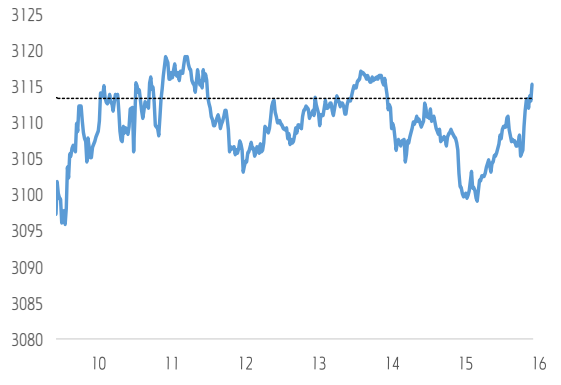
### 미 증시 특징: 일부 기술주, 에너지 서비스업종 상승

미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 요인이 제한된 가운데 혼조 마감. 특히 방향성 없이 개별 종목들의 등락에 따른 결과로 추정. 한편, 트럼프가 미-중 마찰을 재차 부각시키는 발언을 했으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개별 기업들의 재료로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은 상승하며 마감(다우 -0.15%, 나스닥 +0.33%, S&P500 +0.06%, 러셀 2000 +0.04%)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주 156.6 만건 증가보다 소폭 줄어든 150.8 만건을 기록. 그러나 이는 예상치인 122 만건을 상회. 4 주 평균은 지난주 발표된 200 만 8 천건을 하회한 177.4 만건을 기록.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부담을 느낌. 특히 이번 지표는 6 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측정하는 기간의 자료라는 점에서 시장은 고용 회복 지연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미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 오늘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크게 개선되는 등 심리지표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오고 있기 때문

이런 가운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경제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이라고 언급. 특히 개별 회사채 매입과 관련해 "연준은 승자와 패자를 고르는 곳이 아니다" 라며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시장 반등을 제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는 중국이 경쟁국을 망치려고 퍼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미-중 마찰이 재차 부각된 점도 부담. 이렇듯 새로운 이슈가 없는 가운데 시장은 일부 기술주와 에너지 서비스 업종 등이 상승을 주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등락률(%) | Close | D-1 | 지수등락률(%) | Close | D-1 |
|---|---|---|---|---|---|
| KOSPI | 2,133.48 | -0.35% | 홍콩항셍 | 24,464.94 | -0.07% |
| KOSDAQ | 737.33 | +0.26% | 영국 | 6,224.07 | -0.47% |
| DOW | 26,080.10 | -0.15% | 독일 | 12,281.53 | -0.81% |
| NASDAQ | 9,943.05 | +0.33% | 프랑스 | 4,958.75 | -0.75% |
| S&P 500 | 3,115.34 | +0.06% | 이탈리아 | 19,485.76 | -0.51% |
| 상하이종합 | 2,939.32 | +0.12% | 러시아 | 1,230.71 | -0.58% |
| 일본 | 22,355.46 | -0.45% | 유로스톡50 | 3,249.90 | -0.53%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에너지 업종 강세

국제유가가 상승하고자 옥시덴탈(+3.31%), 마라톤 페트리움(+3.61%), 발레로 에너지(+3.71%), 데본 에너지(+2.53%) 등 원유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제프리스가 테슬라(+1.23%)에 대해 비록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배터리 기술과 자본 비용 절감 등을 기반으로 양호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부 주에 대한 부담으로 아마존(+0.49%), 넷플릭스(+0.47%), 세일즈포스(+3.45%), 줌비디오(+2.03%), 블리자드(+0.64%) 등 언텍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TJX(-2.00%), 로스스토어(-4.45%) 등 의류회사들은 물론 울타뷰티(-2.09%), 나이키(-0.77%) 등은 코로나 재 확산 우려와 트럼프로 인한 미-중 마찰 재확산 우려로 하락했다. US스틸(-13.11%)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경고가 나오자 급락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영향을 줬다. 이는 여타 철강회사들의 부진을 야기시켰다.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0.49% | 대형 가치주 ETF(IVE) | -0.12% |
| 에너지섹터 ETF(OIH) | +0.45% | 중형 가치주 ETF(IWS) | -0.18% |
| 소매업체 ETF(XRT) | -0.19% | 소형 가치주 ETF(IWN) | -0.12% |
| 금융섹터 ETF(XLF) | -0.12% | 대형 성장주 ETF(VUG) | +0.21% |
| 기술섹터 ETF(XLK) | +0.45% | 중형 성장주 ETF(IWP) | +0.30%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1.33% | 소형 성장주 ETF(IWO) | +0.11% |
| 인터넷업체 ETF(FDN) | +0.19% | 배당주 ETF(DVY) | -0.06% |
| 리츠업체 ETF(XLRE) | -1.24%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05%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1.42%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00% |
| 바이오섹터 ETF(IBB) | +0.50% | 미국 국채 ETF(IEF) | +0.22% |
| 헬스케어 ETF(XLV) | -0.34% | 하이일드 ETF(JNK) | -0.30% |
| 곡물 ETF(DBA) | -0.30% | 물가연동채 ETF(TIP) | +0.45% |
| 반도체 ETF(SMH) | -0.14% | Long/short ETF(BTAL) | +0.04%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
| 에너지 | 301.45 | +1.19% |
| 소재 | 353.04 | +0.04% |
| 산업재 | 590.29 | -0.33% |
| 경기소비재 | 1,044.5 | -0.21% |
| 필수소비재 | 609.93 | +0.54% |
| 헬스케어 | 1,159.85 | -0.30% |
| 금융 | 399.37 | -0.09% |
| IT | 1,807.54 | +0.48% |
| 커뮤니케이션 | 184.15 | -0.01% |
| 유틸리티 | 298.17 | -0.04% |
| 부동산 | 220.38 | -1.34%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0% 하락 했으나 MSCI 신흥지수 ETF 는 0.05%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2.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증시는 변화 요인이 크지 않은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요인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 종목장세를 보였다. 특히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가는 등 언택트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나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하는 등 종목이 압축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반적으로 시장은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가 미-중 마찰을 재차 부각시키는 발언을 했다.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중국에 있음을 또 다시 부각 시킨 것인데 전일 미-중 하와이 회담이 긍정적이었던 점을 감안 이번 트럼프 발언은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더 나아가 미국 고용지표 부진 또한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국제유가가 감산 유지 기대 속 2.3% 상승을 하고, 미 증시가 장 후반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은 제한된 가운데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고용지표 부진 Vs. 심리지표 개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55.6 만건) 보다 감소한 150.8 만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예상치(122 만건)을 상회했다.

6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43.1), 예상치(-22.7)을 크게 상회한 +27.5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염 신규수주(-25.7→16.7), 고용지수(-15.3→-4.3)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도 개선 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2%대 상승

국제유가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이 높아졌으나, OPEC+ 국가들의 감산 이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이날 있었던 OPEC+ 감산 감시 위원회(JMMC) 회의에서 현재 감산 이행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오는 22 일까지 이를 채우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감산 이행을 위한 노력이 각국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이 영향을 주며 유로화 등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달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BOE 가 양적완화 규모를 1 천억 파운드 확대하자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되었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부진 여파로 하락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조사 기간은 고용보고서 조사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6 월 고용보고서 우려가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여기에 미,중 코로나 확산 지속도 금리 하락 요인이었다. 다만, 그 폭은 제한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다

금은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지표 개선, 달러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다.